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 ‘지역 연방’ 해법 주목

광주 광산구, 경기도 화성·오산시와 정책 공조
업무 협약 맺고 출산·보육·교육정책 공동 추진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지역연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경기도 화성·오산시와 ‘정책 공조’를 펼치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청춘도시’들이 보육·교육 정책을 공동 운영하고 중앙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공모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도시는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는 체인석 화성시장, 광상욱 오산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어린이집 원장, 보육 협동조합 등 단체와 시민 100여이 참석했다.

이들 세 도시의 평균 연령은 광산구(35.8), 화성(36), 오산(36) 등으로 젊어 ‘청춘도시’로 불린다.

그만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다. 때문에 이 세 도시는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생산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협약과 정책연대는 광산구가 두 도시에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 도시는 각자 발굴한 보육·교육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병원아동 보호사(광산구), 학교복합화사업(화성시), 미래내일학교(오산시) 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이들은 또 정책연대를 다른 도시로 확장해 ‘청춘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정책을 수립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들 도시의 공통된 목소리다.

세 도시는 이런 의지를 담아 ‘지역연방’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상급식 등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보시킨 정책들이 지역에서 시작됐듯,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지역연방으로 제시한다



광주시 광산구·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오산시는 18일 협약을 맺고 출산, 보육, 교육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체인석 화성시장, 광상욱 오산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산구 제공>

는 것이다.

또 시민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지역으로부터 확산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한국에서 가장 젊은 세 도시가 뭉쳤다”며 “연대로 정책의 파급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체인석 화성시장도 “국가가 해결 못한

현안을 지역에서 풀어가자는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며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꼭 넓게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상욱 오산시장도 “지역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마음으로 출산, 보육, 교육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보다 폭 넓게 교류하고 긴밀히 협조해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는 최근 광주여대 등과 손잡고 ‘병원아동보호사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교육 개강식. <광산구 제공>

광산구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 보육·일자리 해결 모델 선보인다

국비·지방비 9억원 투입

공동 육아사랑방 조성 등

5개 분야 나눠 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행정자치부의 ‘2017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광산구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국비 4억5000만원에 자체 예산을 더해 마련한 9억원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 기반한 사회적 연대망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계획

이다. 광산구는 ▲공동육아사랑방 ▲광산형 마더박스 지원 ▲광산형 가족친화기업 선정 ▲병원아동보호사 육성 ▲보육교사 수호전사 협동조합 육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계획

이다. 공동육아사랑방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등 공동체 공간에 조성한다. 입주민 중심의 공동육아망을

구성에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기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5개 공동육아 사랑방을 20개로 늘릴 예정이다.

광산형 마더박스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지원하는 육아용품으로, 배냇저고리, 체온계 등 신생아를 갖출 출생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직접 혁신 공간 만들어요...광산구 ‘쭈민 엉뚱사업’ 확대

송정중 등 4개교와 추가 협약

공간 창조 과정 정규수업 편성

민주주의·공동체 삶 등 학습

놀이터 겸 마을공동체 공간을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기획·설계·시공하는 광산구의 문화플랫폼 ‘쭈민(Zoom-In) 엉뚱 사업’(이하 ‘엉뚱사업’)이 확대된다.

광산구는 최근 송정중·여흥초·월계초·점단초와 추가로 엉뚱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를 탐방해 빈 공간을 발굴하고 토론회·벤치마킹·총회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학교는 이 같은 활동을 정규수업으로 편성,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 개념을 스스로 도출하고 디자인하도록 뒷받침한다.

영국, 핀란드, 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이 학교에서 ‘Design&Technology’ 수업을 정규 수업과정으로 편성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광산구는 전국 최초로 공간혁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지난해 말부터 학교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산중·산정중 등 4개 초·중학교가 엉뚱사업을 진행



‘학교공간 혁신’ 협약식에 참석한 학생들의 축하 공연. <광산구 제공>

했다.

엉뚱사업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과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다른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데,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진 점 등도 참여 학교 증가로 이어졌다. 이날 엉뚱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광산

중 학생 7명이 ‘선배’자격으로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코트로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한정석군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꿈을 찾아가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이 설계부터 시작해 마지막까지 혁신 공간 마련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공간을 즐겁게 청조하면서 문화와 예술소양을 갖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반기하겠다”며 “학교, 마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교육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